

백래시는 정치다: 대응도 정치적으로

— 신경아. 2023. 『백래시 정치: 안티페미니즘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동녘

권수현*

한국에서 페미니즘을 비롯해 젠더, 2차 가해/피해, 가스라이팅 등의 단어들이 대중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성학과와 여성운동 내에서 통용되었던 개념들이 언론을 비롯해 예능이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 일상 대화에서도 사용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페미니즘 관련 단어나 개념이 제한적으로 이해·해석되거나 오·남용되는 현실은 페미니스트들의 더 적극적인 현실 개입을 요청한다. 2023년 1월에 출판된 신경아 교수(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백래시 정치』는 백래시 개념과 현상에 대한 페미니스트 학자의 현실 참여적이고 대중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1. 백래시, 익숙하지만 잘 모를 수도

‘백래시(backlash)’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화된 대표적인 페미니즘 개념 중 하나이다. 성별에 기초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나가려는 모든 과정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젠더정치, slowpanda@gnu.ac.kr

에서 이를 막으려는 반발과 반동이 있지만 이를 백래시로 명명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결승선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여성들을 멈춰 세우는 선제공격”(58)¹⁾이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상에 대한 명백한 또는 암묵적인 반대”(23)라는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anti-feminist backlash) 개념은 미국에서도 수잔 팔루디가 『백래시』(1991년)를 출간하면서 확산·수용되었다. 한국에서는 페미니즘 리부트 흐름 속에서 『백래시』 번역서(2017년)가 출판되면서 확산·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치·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에 대한 거부와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제도와 정책이 후퇴하고 폐지되는 상황을 ‘백래시’만큼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성평등과 관련한 모든 후퇴나 퇴행을 ‘백래시’로 명명하는 것은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개념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래시 정치』는 수잔 팔루디의 ‘백래시’ 개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이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붙은 1장과 ‘깊이 읽기: 백래시’ 부록은 백래시 개념의 역사, 백래시의 유형(일시적 반격으로서 백래시 대 일상적·지속적 공격으로서 백래시, 교정적인 백래시 대 선제적인 백래시, 에피소드적 백래시 대 살아 있는 백래시 등)과 형태(민주주의 백래시, 화이트 백래시, 남부지역 백래시, 남성 백래시, 이성애자 백래시 등), 백래시의 요소(반작용, 강압적인 힘, 과거의 힘을 일부 또는 전부 되찾는 것), 여성혐오(misogyny)와의 차이와 관계, 르상티망(ressentiment) 그리고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의 관계 등 백래시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백래시에 대한 ‘넓은’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1) 팔호 안의 숫자는 『백래시 정치』에서의 쪽수를 의미한다.

한데 2장(‘백래시, 그 낯설고 익숙한 세계사’)과 3장(‘정치가 된 혐오, 한국의 백래시’)은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의지를 추동한다. 무엇보다 미국, 일본, 독일, 동유럽(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라틴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덴마크 국가들에서 나타난 백래시의 특징들과 유형들을 간략하게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2장은 페미니스트 연구자 입장에서 흥미롭고 유용하다. 한국 백래시는 다른 국가의 백래시와 어느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한국 백래시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등 백래시 비교연구가 더 정교화되고 다각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한국의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 현상을 서술·분석하고 있는데 이 책에 서술된 내용이 한국의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 현상을 모두 설명한다고 할 수 없다. 신경아 교수의 압축적인 서술과 분석을 더 풍부하게 하거나 빠진 부분을 찾아 채워 넣어야 할 것들이 많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여성정책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는데²⁾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시 말해 어떤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성평등정책 후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조직에서 ‘여성’이라는 명칭이 삭제되거나 여성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흡수·통합되었는데 이러한 조직 변화가 지역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평등 조직이 유지된 곳과 폐지된 곳 간에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는 언론이나 정치영역에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 담론과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활용

2) 2022년 11월 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안은 사회적 소수자 사례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했고, ‘성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교체했다(이상현, 2022). 중·고교 보건 교육과정안은 교육부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됐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 결과과정에서는 ‘섹슈얼리티’가 삭제됐다(오세진, 2022).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2.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백래시 ... 그 시작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백래시 정치』가 유의미한 지점은 ‘백래시’의 ‘정치성’, 즉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대한 공격을 사회적으로 허용하거나 인정하는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37)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그러한 정치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공격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주장으로 승인하지 않을 때 안티페미니스트 세력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37)

백래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치·사회적 폭발력을 지니고 성평등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때는 대통령, 의원, 정당, 의회와 같은 정치엘리트 집단에 의해 백래시가 정당화될 때이다. 한국에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또한 한국 정치엘리트 집단이 이를 정당한 요구로 수용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신경아 교수는 ‘여성할당제 폐지’, ‘여가부 폐지’, ‘남성 역차별’, ‘군복무가 산점제’ 등의 키워드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 등 선거 또는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등장했고,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의

특징 중 하나는 확산의 계기가 정치권의 동원에 있”(142)고, 따라서 “백래시를 이끌어간 주도세력”은 “정치권”(146)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으로 보수 야당(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목하고, 이들에 의한 정치적 동원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이자 토대, 선행주지는 문재인 정부와 현재 야당(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최초로 탄핵”되면서 치러지게 된 19대 대선 과정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백래시와 정치의 남성성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이진옥, 2017).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웠지만 문 제적인 남성들을 내각에 기용하(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³⁾ 탁현민은 문재인 정부의 강고한 남성연대(male bond)를 보여주는 상징적·대표적 사례이다. 여성대표성을 확대하는 것보다,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보다⁴⁾ 탁현민이라는 남성을 지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다. 탁현민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탁현민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했고, 탁현민이 수많은 언론 중에서도 <여성신문>만을 꼭 집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치했고, 퇴직한 탁현민에게 더 높은 의전비서관 자리를 제안하며 다시 불러들여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 이 외에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인 안희정의 부모님 장례식에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공식적으로 보냄으로

3)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쓴 책, <남자란 무엇인가>가 성매매와 성폭력을 생물학적인 남성의 수컷 본능으로 합리화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차대운·고동욱, 2017). 지명 5일 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었다(『YTN』, 2017.06.16.).

4)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과제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2017년 9월부터 운영된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는 5차례 회의를 끝으로 동년 12월에 중단되었다. 대안으로 18개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정부의 ‘총괄 성폭력 정책 사령탑’ 구상이 제시되었는데 이 또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오예진, 2021).

써 안희정의 정치적 위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이와 관련한 지지자 집단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남성연대 정치를 복원했다.

2018년 12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2018), 즉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20대 여성을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지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20대 남성은 “경제적 생존권과 실리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규정하면서(진주원, 2019a) 젠더 갈라치기 논법을 구사했다. 빅카인즈를 통해 ‘젠더갈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 추이를 검색해 본 결과, 젠더갈등 프레임이 2018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다(박다해, 2022)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또한 젠더 갈라치기에 적극 동참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표창원 의원은 2019년 1월 30일, “국회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라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동년 4월 13일에는 “젠더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균형 또는 공정성을 이유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전문가 자격과 발언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⁵⁾

당시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을 교차한 10개 집단 중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면, 20대 여성은 가장 높은 지지율(63.5%)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으로 간주되는 40대와 50대 여성(61.2%, 40.7%)과 남성(60.4%, 46.0%) 집단보다

5) 두 사람은 한 달 전에 최재성 의원이 기획한 ‘젠더갈등 전면해부 전문가 대토론회’(2019년 3월 4일 예정)에도 전문가로도 초청되었다(진주원, 2019b). 두 사람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 최재성 의원의 토론회는 취소된 반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 토론회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높은 지지집단이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남성’에만 주목했고, 특히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이 여성우대정책이며, 남성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⁶⁾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당대표)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섰다.⁷⁾ 이러한 경향은 20대 대선 때까지 지속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글을 공유했고 (2021년 11월), 12월 9일에는 ‘에캠코리아(캠코)’에 직접 글을 남기는 등 젠더갈등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3. 선출된 독재자의 탄생, 정치지도자들의 집단적 포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현대 민주주의의 붕괴와 죽음은 선출된 독재자에 의해 이뤄지며,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주장한다(레비츠키·지블랫, 2018).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과 책임은 선출된 독재자에 있기보다는 선출된 독재자의 등장을 막지 못한 기성정치, 정치 지도자와 정당에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기는 어느 사회에

6)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 것에 대해 남성들은 역할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당시 당대표에 도전한 정한도 민주당 용인시의원은 “젠더와 관련해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남성도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발언했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1).

7) 2021년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레비츠키·지블렛, 2018: 13)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년공약이자 여성공약으로 제시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제3자 배상을 요청하고, 주69시간 노동을 추진하고, 여성정책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예산을 축소하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프레임해 하한액 하향·폐지를 추진하고, 노동조합을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진보적 시민단체들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돌봄노동의 책임을 제3세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등 성평등과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 정치지도자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따르는 이유가 그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그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집단적 포기(collective abdication)'를 한 것은 명백하다(레비츠키·지블렛, 2018).

안티페미니즘 백래시의 확산과 민주주의 퇴보의 책임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두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있다.

4. 백래시에 대한 반격, 현실정치를 통한 정치적 개입 이뤄져야

성평등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백슬라이딩(backsliding) 사회에서 여성/페미니스트/여성운동은 어떻게 저항·생존해야 할까? 『백래시 정치』의 마지막 4장(‘민주주의의 위기와 백래시 대응’)에서 신경아 교수는 운동 모델을 국가와 여성운동 간 관계를 상징하는 양자 모델에서 국가와 여성운동, 반여성·반성평등운동이 관계를 맺는 삼각모델(triadic model)로 바꿀 것을 제시한다.⁸⁾ 삼각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명백하다. 여성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는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진보적·보수적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공존했고, 진보보다 보수 단체들이 사람과 자원도 많고,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더 컸다. 더욱이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보수 집단의 극단주의·본질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정치화”(222), 즉 “본질주의 젠더 이데올로기”(223)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반여성·반성평등운동의 존재를 기본값으로 전제하고 여성운동의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삼각모델을 전제한 전략 수립과 함께 신경아 교수는 다음의 네 가지를 여성주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다. 첫째, 여성주의 실천의 가치와 지향, 역사와 전략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247-248). 둘째, 연령과 성별,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는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주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248). 셋째, 지역사회의 풀뿌리 여성운동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248-249). 넷째, 담론 지형의 전투에서 반혐오·반차별·반폭력 세력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249-250).

다섯 가지 실천 전략은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백래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다소 원론

8) 자세한 내용은 『백래시 정치』 228-232 참조.

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각모델로 변경한다고 할 때 어떤 전략이 유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백래시 정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백래시와 현실정치(real politics)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백래시 정치』가 현실정치에 대한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참고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백래시 정치에 대한 미국 페미니스트들의 대응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의 여성운동이 구체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는 사례이다(2장 참조). 정치학자 낸시 코헨(Nancy L. Cohen)은 미국에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가 성공을 거둔 원인 중 하나로 페미니스트가 “선거정치라는 영토를 넘겨주었기 때문”(81)이라고 분석했고, “페미니스트들이 선거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82)에 백래시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했다(Ball, 2018). 투표 참여를 넘어 후보 출마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증가했다.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에 출마를 문의한 여성이 2년 전 1,000명에서 2018년 36,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여성들이 출마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Ball, 2018: 32). 여성들의 출마 도전은 할당제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⁹⁾

한국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가 구성돼 102명의 여성 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정당

9) 당시 미국 여성들의 후보출마 도전과정은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Knock Down the House)’ 참조(리어스, 2019).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여성의원 비율은 2년 전 19.3%에서 23.4%(102명: 89명 민주당, 13명 공화당, 이 중 43명은 유색인종)로 증가했고(CAWP, 2018),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여성의원 비율은 28.3%(123명: 민주당 91명, 공화당 32명)가 되었다(CAWP, 2022).

들에게 전달해 이들을 후보로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는 성공적인 편이었으나¹⁰⁾ 이러한 방식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여성운동 내 비판이 컸고(오장미경, 2004), 정치적 환경도 변화하면서 한 번의 활동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2020년에 정당 차원에서 유사한 활동(녹색당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이 진행되었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에 기반을 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깨네’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출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좋은 시도였지만 아쉽게도 아직 당선 사례가 없다.

미국의 선거운동제도는 한국과 완전히 다르고, 시민운동의 기반과 환경 또한 다르기 때문에 미국 여성/페미니스트들의 백래시 대응전략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례의 중요한 교훈은 현실정치에 여성/페미니스트들의 자리가 없을 때 거리의 정치만으로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와 민주주의 백슬라이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백래시가 현실정치에서 추동되었듯이 백래시를 막는 투쟁도 현실정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정치에 페미니스트/페미니즘 정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백래시 정치』를 매개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전략들이 논의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은경. 2010.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위원의 대 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30: 101-136.
- 레비츠키, 스티븐 & 지블랫, 대니얼.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 연 역. 서울: 어크로스 (Levitsky, S. & D. Ziblatt. 2018. *How*

10) ‘맑은 정치 여성네트워크’가 추천한 후보 중 46명(45.1%)이 공천을 받았고, 46명 중 15명은 지역구 공천을, 31명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구 15명 중 3명, 비례 대표 31명 중 19명, 총 22명(47.8%)이 당선되었다(김은경, 2010: 116-117).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Books).

- 리어스, 레이첼. 2019.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넷플릭스 (Lears, R. 2019. Knock Down the House, Netflix).
- 리얼미터. 2018. “주 후반 회복세” 文 대통령 지지율 48.5% … 20대 男 29.4% 최저”.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12%ec%9b%94-2%ec%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c%a3%bc%ed%9b%84%eb%b0%98-%ed%9a%8c%eb%b3%b5%ec%84%b8-%e6%96%87/> (2023년 10월 5일 검색).
- 박다혜. 2022. “페미니즘은 죄가 없다…일베·캠코 인기글 46만 건 분석”. 『한겨레 21』 2022.10.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2155.html> (2022년 10월 5일 검색).
- 오세진. 2022. “국교위 ‘섹슈얼리티’ 삭제는 무책임한 결정…국제기준 무시”. 『한겨레』 2022.12.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2150.html> (2023년 10월 7일 검색).
- 오예진. 202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현 정권 임기내 어렵다”. 『연합뉴스』 2021.05.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4116100530> (2023년 10월 5일 검색).
- 오장미경. 2004. “한국 여성운동과 여성 내부의 차이”. 『진보평론』 20: 152-178.
- 이상현. 2022. “성소수자·성평등 삭제하고 ‘자유’ 추가하고…교육과정 개편안에 ‘시대착오적’ 비판”. 『프레시안』 2022.11.1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1010275490732> (2023년 10월 7일 검색).
- 이진욱. 2017. “대선과 젠더 정치: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7(2): 95-137.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1.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안티페미니즘을 중단하라”. http://www.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33&wr_id=372&page=8 (2023년 10월 6일 검색).
- 진주원. 2019a. “대통령 정책기획위, “20대 여성이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로 무장””. 『여성신문』 2019.02.27.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157> (2023년 10월 5일 검색).

- 진주원. 2019b. “최재성 ‘젠더갈등 토론회’ 결국 취소…“민주당이 갈등 부추긴 꼴””. 『여성신문』 2019.02.2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007> (2023년 10월 5일 검색).
- 차대운·고동욱. 2017. “안경환 칼럼·책 연일 논란…음주운전고백·성매매 두둔성 언급”. 『연합뉴스』 2017.06.13.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3023751004?input=1195m> (2023년 10월 5일 검색).
- Ball, M. 2018. “The Women Are Winning”. *Time* June 25, 2018. 191(24): 30-33.
- CAWP. 2018. “Results: Women Candidates in the 2018 Elections”. https://cawp.rutgers.edu/sites/default/files/resources/results_release_5bletterhead5d_1.pdf (2023년 10월 7일 검색).
- CAWP. 2022. “Results for Women Congressional and Statewide Executive Candidates in Election 2022”. <https://cawp.rutgers.edu/blog/results-women-congressional-and-statewide-election-2022> (2023년 10월 5일 검색).
- 『YTN』. 2017.06.16.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5일 만에 사퇴”. https://www.ytn.co.kr/_ln/0101_201706162248344943 (2023년 10월 5일 검색).

